

“사랑을 전하세요” 유통업계 구애戰

밸런타인데이 겨냥 선물 증정·할인 등 이벤트 경쟁

지역백화점과 외식·유통업계가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겨냥한 상품을 내놓고 일제히 마케팅에 나섰다.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선택의 폭이 넓어지긴 했지만 밸런타인데이를 즐기려는 소비자는 선택에 따라 상당한 지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월 새봄을 맞아 정월대보름, 입학·졸업등과 함께 예년보다 빠르게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1일 밝혔다. 11일 2층매장에서 구매 고객(액수, 상품 제한 없음) 대상 선착순 100명에게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 쿠션속에 돌란의 사진이 들어 있는 커피쿠키 증정행사를 진행 하고 1층 정문에서는 구매고객대상 초콜릿 모양의 거울을 300명에게 선

착순 증정한다. (주)광주신세계에서도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다양한 행사와 선물세트 상품을 준비했다. 2층 핸드백 러브캐, 더블엡에서는 오는 14일까지 핸드백, 지갑에 한해 10% 할인 판매하고 루이까뜨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등록 고객 확인시 10% 할인 및 포인트를 2배 증정한다. 또 메트로시티 핸드백에서는 20·40만원이상 구매시 1·2만원 신세계 상품권, 30만원이상 구매시에는 메트로시티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을 증정하고 밸런타인데이 세트 구매시에는 10% 할인가격에 판매한다. GS25는 한국스마트카드와 공동 출시한 선물결제 방식의 팝(POP) 카드로 밸런타인데이 상품을 구매하면

초콜릿 58종을 20% 할인해 주고 LG 유폴러스와 올레 KT 카드가 있으면 15%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벨기에 수제 초콜릿 고디바(5000원, 1만원, 4만원)와 아일랜드프린세스 마카다미아 초콜릿 등과 같은 외국 브랜드도 준비했다. 보광웨리마트는 저가형 상품을 작년보다 두 배로 늘려 5000원 이하가 46%, 8000원 이하가 21%가 되도록 구성했고 각종 제휴카드 할인 혜택을 준다. 미니스톱은 ‘세계 초콜릿 모음진 및 명품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페레로로세, 갈리안, 쏘넬, 린도 등 95가지 상품을 판매한다. 15일까지 5000원어치 이상 구매하는 소비자를 추천해 프라다·버버리 가방 등을 증정한다.

세븐일레븐은 작년 밸런타인데이 매출을 집계한 결과 1만원 미만 상품이 매출의 86%를 차지했고 이는 간단한 선물을 용을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와 판매 단위가 적은 상품을 구입한 뒤 스스로 포장을 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맞춰 지인들에게 부담없이 줄 수 있는 상품과 자체 포장 선물을 활용하기 좋은 고급형 소량 상품의 종류를 늘리기로 했다. 외식업계도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하는 특별 메뉴를 내놓았다. 기능성 과일음료매장 스무디킹은 연인이 함께 나눠 마시는 음료를 표방하며 2·3월 한정 메뉴인 ‘밸런타인 커피 스무디’를 출시했다. 도넛업체 크리스피 크립 도넛은 하트형의 ‘밸런타인 도넛’과 ‘밸런타인 모카’를 한정 판매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연협뉴스

“수수료 인하 없으면 가맹점 해지”

소상공인연합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해 온 소상공인 단체 등이 대기업 카드사들의 가맹점 해지 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간담회를 열고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15일부터 해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 해지 대상은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대기업 계열 카드사 3곳이다. 연합회는 카드사들이 계열사나 대형마트 등에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3%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을 지정한 이유에 대해 “골목상권을 잠식해 소상공인을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자기 계열사에만 수수료를 우대해 주는 차별 관행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현대카드사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수수료로 1.7%를 물리면서 소상공인에게는 평균 3%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문제는 모른 채하고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0.7%라는 저율의 수수료를 물리는 삼성카드 역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자금사정 ‘먹구름’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서 체감경기도 떨어지고 있다. 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465곳을 대상으로 한 ‘2012년 1월 광주·전남지역 기업자금사정 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 기업자금사정 BSI(기업재정 건실사지수)는 86(기준치 100)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자금 사정 BSI가 100 미만이면 자금 사정을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은 87로 전달보다 5포인트 내려졌지만 비제조업은 85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자금수요 BSI는 104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자금조달 BSI는 91로 전달보다 5포인트 내려갔다. 2월 기업자금사정 전망BSI는 85로 2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여전히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미기자 emlee@



엑스포 기여...정몽구 회장 ‘국민훈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일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한국관에서 열린 ‘여수엑스포 성공개최 다짐대회’에서 엑스포 공헌을 인정받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고 있다. /최해태기자 choi@kwangju.co.kr

대전변압기 서울이전 반대운동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6>

화순화력발전소 건립 운동 ⑥

시민들 대전 땀별농성 5일간 탈진환자 속출 정부 이설 중단선언...무대점 맞선 도민 승리

▲대전 변압기 이설 반대 도민결기 대회
서울 서대문구 수색변전소의 화재로 호남과 충청지역의 전력원인 대전 가오리변전소의 변압기를 서울 수색으로 이전키로 한 정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광주·전남지역 민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지역민들로서는 뼈 아픈 연탄난을 겪으면서도 정부의 지역별 석탄배분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 모자란 화순탄을 역외로 내주고 있는 터에 정부가 전기까지 끊어버린다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석탄 증산을 위한 발전소마저 물 건너 가 지역민들의 불만은 더했다. 대전 피해지역인 전·남북과 충남·북도 지역 중만저 들고 일어난 곳은 광주·전남지역이 였다. 1960년 7월11일 이 사실을 접한 광주상공회의소는 즉각 의원들을 소집,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목포, 여수, 순천상공회의소는 물론 전남도와 광주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7월13일에는 대전변압기 수색이전 결사반대 도민결기대회가 열렸고, 분노한 시민들은 도심으로 거리시위 행진을 벌였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 상황을 이 해답사지역인 전북과 충남·북 등지의 상공회의소에 알리고, 국무

총리와 상공부장관 조순전업(발전회사·지급)의 한국전력은 발전회사인 조순전업과 대전화사인 경성전업, 남선전업 3사의 합병회사(임) 사장에게 대전변전소의 변압기 이설공사를 현장에서 불발 더위를 무릎쓰고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당일 윤승호 부회장을 비롯한 광주·전남 상공인 시위대가 대거 대전으로 올라가 변압기 이설공사 현장에서 불발 더위를 무릎쓰고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기나긴 땀별 농성 투쟁
이들 동안의 농성 투쟁에서 불발 더위로 쓰러지는 탈진환자가 속출했다. 결국 7월15일에는 광주에서 올라 온 새 시위대와 농성단이 교체되었다. 다음날인 7월16일에는 전·남북과 충남·북 상공회의소의 회장단으로 구성된 진정단들이 국무총리와 상공부장관, 조순전업 사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전변압기 이설을 항의했고 해체공사의 중단을 요구했다. 사태가 급박하고 광주·전남의 민심이 들끓게 되자, 정부는 1960년 7월17일 농성 5일만에 대전 변압기의 서울 이전을 위한 해체공사를 중지했다. 우리 고장 상공인들의 단결력과 단호한 의지가 이룩한 지역민을 움직이게 했고 나아가 정부의 안

일한 편법 행정에 맞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의 대전 현장 농성단은 변압기 해체공사 중지 발표가 있는 다음날인 7월18일 광주에 돌아왔으며, 7월20일 대전변압기 이설 반대운동시민보고회를 가졌다. 그러나 변압기 해체공사의 중지에도 당시 열악한 전력사정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판국이었다. 따라서 광주상공회의소는 피해 지역민의 보다 확고한 결의와 단결력을 다지기 위해 1960년7월25일 대전 변전소 변압기 이설반대 전남·북·충남·북연합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대전변압기의 조속한 원상 복구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위대한 광주 시민의 승리
이같은 일련의 사태는 이듬해인 1961년 4월 서울에서 3만6000kW 용량의 변압기를 도입, 대전 변전소에 설치하고 기존 3만2000kW 용량의 대전변압기를 서울 수색변전소로 이설함으로써 일단락될 것 같았다. 그로부터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용량은 거의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1948년 20만kW에서 1962년 군소전기회사들을 한국전력으로 통합했을 때 36만7000kW로, 1990년 말 현재로는 57배를 웃도는 2102만1120kW로, 그리고 2010년 8월말 현재로는 7200만50만kW로 198배 가까운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참으로 금석지감이 아닐 수 없다. 위 중 (연문인)

光銀, 7월까지 여수박람회 기념 금리우대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D-100일 기념 특별 우대금리를 이달 2일부터 제공

한다. 대상은 7월말까지 광주은행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KJB 여니·수니 적금’은 8월말까지

정책적립식으로 신규가입하는 개인 고객에게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은 4월 말까지 정상가격에서 5% 할인해 광주은행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5월1일부터는 정상가격으로 판매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붕분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비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www.oknwood.com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편백나무가구 전시 판매장

편백 입체블럭

반신목 폼질방 소파 및 침대

2012년 신제품 특허제품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 전시장 2층

편백나무 전시장 4층

친환경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히노키, 중국 향목 루바 일체
- 활토보드, 게르마늄 분말, 윤기석 토탈
- 친환경 흡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칼라 내장 마감재, 목모보드

각종 내장재

- 스텝재, 미송각재, 합판, 스텝폼의 내장재 일체
- 방부목, 특수목, 남미산천연데크재, 독일산 아이돌(오일스테인)

힘력사

- 우단페이퍼몰딩, 필름합판, 문짝, 물림,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 강화마루, 한솔강화마루, 동화마루 대리점, (주)장기방
- 라파스, KCC 석고보드 총판
- 레포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

목조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히트상품 : 편백입체블럭, 편백보드마감재

11월 24일~27일까지 열렸던 KBC건축박람회에 광남종합목재건설사(주)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판매주문제작 전국 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청문문의 010-3609-4321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 652-2935 - 2223 fax. 062) 651-5141